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6

자연 재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연합감리교인들의 온정어린 지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복하는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구호위원회가 자연 재난을 겪은 지역이나 전쟁 중인 지역에서 벌이는 정신적 및 사회적 지원, 의료 지원, 재해 사례 관리 및 음식, 물, 생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 지원 등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2022년 연합감리교인들이 드린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아래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재난 대응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 테네시, 미시간, 켄터키 수해 복구 지원
- 앨라배마, 플로리다,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사우스/노스 캐롤라이나, 위스컨신 악천후 및 토네이도 피해 복구 지원
- 뉴멕시코, 콜로라도 산불 복구 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원 사업 및 전 세계 소요 지역 지원
- 지진, 열대성 폭풍,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도미니카공화국 허리케인 피해 복구 지원

지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인 오늘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구호위원회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구호위원회는 위기를 만난 지역에 찾아가 우리를 대신해 실제적 사역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구호주일 헌금이 구호위원회의 제반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특정 재난을 명시해 드려진 지정 후원금들이 전액 재난 대응 및 복구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구호위원회의 사업경비를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사무실 불을 밝히는 등,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구호위원회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합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세상 또 우리 지역사회는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19 대유행의 전 지구적 여파, 미국 내의 격동적 정치 환경 및 임박한 교단 분리와 관련된 불안으로부터 여전히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분의 약속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질과 후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예물은 섬김의 리더십, 지역 사회 구축 사업 및 평화와 정의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공동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모으는 일은 우리가 신실한 결단을 통해 은혜로 충만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또 푸에르토리코와 콜로라도에 이르기까지 구호위원회는 의료, 음식, 위생, 직업 안정 등 사람들이 가진 매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합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교회, 연회, 비영리기관이 그들의 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고,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또한 구호위원회는 단지 단기적 비상사태에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및 정부 단체, 교회, 연합감리교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계를 맺고 재난 이후 수년간 지역사회들의 재건 과정을 돕습니다.

넉넉한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고통 당하는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세요.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